

제1절 통일교육 강화 및 지원체계 정립

1. 통일교육 지원체계 정립

가. 통일교육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통일교육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통일교육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국회의장 추천 민간전문가 등 24인으로 구성된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2000년 7월과 12월 두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된 통일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통일교육 발전방안」과 「2001년 통일교육기본계획」, 「2001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심의·의결하였다.

그리고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통일교육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상정안건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7월과 11월 두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통일교육심의위원 명단>

2000. 12. 31. 현재

성명	소속	비고
박재규	통일부장관(위원장)	당연직
김상권	교육부차관(부위원장)	
양영식	통일부차관	
김경한	법무부차관	
문일섭	국방부차관	
김재영	행정자치부차관	
김순규	문화관광부차관	
김상남	노동부차관	
김병일	기획예산처차관	
김경애	여성특별위원회 사무처장	
김병호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	
구본태	한나라당 정책자문위원	국회의장 추천
남주홍	경기대학교 교수	
라종일	경희대학교 교수	
백용호	중앙대학교 교수	
홍연숙	한양대학교 교수	
민병천	서경대학교 총장(부위원장)	통일부장관 임명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용제	건국대학교 교수	
김학준	명지대학교 교수	
박도순	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이경숙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이온죽	서울대학교 교수	
전인영	서울대학교 교수	

나. 2001년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에는 「2001년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서 2001년 통일교육의 3대 목표로 ①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②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③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필요성 인식 및 통일실현의지 함양을 설정하였다.

또한, 통일교육 5대 중점추진과제로는 ① 통일환경 및 남북관계에 부합되는 교육내용 정립 ② 정부·민간·언론의 역할분담체제 강화 ③ 학교·사회통일교육의 활성화 지원 ④ 지식정보시대의 열린 통일교육 실시 ⑤ 수요자중심의 통일교육내용 및 기법 강화를 설정하였다.

한편, 이 기본계획에는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통일부, 여성특별위원회, 민주평통자문회의,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41개 사업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다. 통일교육기본지침서 발간·보급

정부는 통일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올바른 통일의식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학교 및 사회의 교육현장에 지원하여 왔다. 1999년 8월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이에 입각하여 1999년 12월 「2000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발간·배포하였으며, 2000년 12월에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환경의 변화와 남북 화해·협력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2001년도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이 지침서의 주요 특징은 ① 국민들이 북한사회의 단편적 모습이 아닌 기본운영원리를 이해하여 남북관계에 대한 판단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②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모색하며 ③ 통일을 지향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내부의 계층별·세대별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④ 최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실상의 통일과 제도적 통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북한변화의 의미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였으며, ⑤ 통일교육의 지도원칙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 민족공동체 교육, 평화교육, 다문화교육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포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2001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일교육기본지침서 구성 및 주요 내용>

구 성	주 요 내 용
Ⅰ. 통일교육의 의미와 목표	1. 통일교육의 정의
	2. 통일교육의 목표
	3. 통일교육의 과제
Ⅱ.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1. 통일의 필요성
	2. 북한사회의 모습
	3. 북한의 변화 이해
	4. 통일환경의 변화
	5. 한반도 냉전구조해체 노력
	6. 대북포용정책과 남북관계
	7.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
	8. 통일국가의 실현
	9.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Ⅲ. 통일교육의 지도원칙	1. 통일교육의 일반적 지도원칙
	2. 통일교육의 대상별 지도원칙

라.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지원

정부는 통일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국민들의 통일의식 함양 및 학교·사회통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단체의 통일교육관련 워크숍 개최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총 5차례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개최 현황>

주관단체	일 자	발표주제
한국정치학회	2000. 3.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교육의 방향과 제도 - 분단현실과 통일교육의 방향 - 통일교육의 내용, 범위, 제도
통일교육연구원	2000. 10.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화해협력시대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조방안 - 화해협력시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과제 - 민간 통일교육관련단체 육성방안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2000. 1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기의 민간통일교육 - 전환기의 통일교육 내용과 구성 - 민간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방송프로 듀서연합회	2000. 11.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통일의식 형성을 위한 방송의 역할 모색 - 남북정상회담 이후 방송프로그램과 교육현장의 변화 - 남북정상회담 이후 교육현장에서의 통일교육 변화
한국여성개발원	2000. 12.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여성의 통일의식 및 교육요구조사에 기초한 여성통일교육의 방향 - 여성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

2. 통일교육 강화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개된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발맞추어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부합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안보를 바탕으로 한 화해협력 지향」이라는 기존 교육방향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화해협력 및 평화공존을 보다 강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 학교교사 등 지역사회 및 학교현장에서 통일문제 관련 여론 주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상황, 북한 주민의 생활상, 균형잡힌 통일관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하고, 북한 방문 예정자들에 대한 방북안내교육을 내실화하여 방북활동

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통일과정에서 남북화해협력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국민에게 바람직한 통일관과 건전한 안보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교육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교과과정을 새롭게 편성하고 정보화시대에 알맞는 다양한 교육기법을 활용하는 한편, 기존 통일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워크숍 개최 등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남북관계 상황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을 정비하였다.

<통일교육 교과 내용>

구 분	교 과 내 용
통일의 당위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의 의미와 성격 ○ 분단의 배경과 폐해 ○ 평화통일의 필요성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체제의 특징 : 정치·경제·사회·문화 ○ 북한의 변화 가능성 ○ 북한의 대남전략·대외정책
평화통일환경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질서의 변화 ○ 통일환경의 변화가 주는 함의 ○ 평화정착을 위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포용정책과 국가안보 ○ 남북기본합의서의 의미와 남북관계 진전과정 ○ 남북관계의 현황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국 통일의 교훈 ○ 통일국가의 미래상 ○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 ○ 민주복지사회의 구현
체험·참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문점, 땅굴 등 분단현장 시찰 ○ 주제별 토의·과제 연구, 대담토론 등

이 같은 정부의 통일교육 목표와 방침, 교과내용에 따라,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은 크게 정규교육과 국내외 출장교육으로 나눌 수 있으며, 2000년의 경우 정규교육 4개 과정 14,829명, 국내외 출장교육 16,021명 등 총 30,850명에 대해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가. 정규교육

정규교육은 통일교육전문과정, 통일업무 관련 공무원과정, 특별과정, 남북교류협력과정

등 4개 과정 19개 반으로 운영하였으며, 교육인원은 14,829명이다.

통일교육전문과정은 각 지역사회나 학교 등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통일교육전문위원, 평통자문위원, 사회교육기관장사, 초·중등교사·교장·교감·장학사(관) 등 교육전문직, 대학교수, 관리직 공직자 등 6개 반을 대상으로 3,707명에 대해 3~5일 기간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사회 및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층적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통일업무 관련 공무원과정은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견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공무원반,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교사반 등 3개 반을 대상으로 762명에 대해 2주 기간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은 통일과정에서의 남북간 교류·협력 및 민족공동체 형성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였으며,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남북화해협력과정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과제 등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을 편성하였다.

특별과정은 전국 시·도 교육감, 초·중등학교 학부모, 사회단체간부, 통일단체간부, 대학생 등 8개 반 5,899명에 대해 1~3일 기간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은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남북교류협력과정은 북한을 방문하는 기업인이나 경수로사업 추진인력 등 북한방문에 정자, 남북회담 및 왕래행사 참가자, 금강산관광도우미 등 3개 반 4,461명에 대해 1일 3~4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방북예정자반은 남북관계 현황과 방북시 행동요령 등 교류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북한체류시 필요사항 등을 안내하는 차원에서 운영하였다. 2000년 6월부터는 남북정상회담, 장관급회담 등 남북당국간 회담대표단과 이산가족교환방문단 등 남북왕래행사 참가자에 대해서도 회담과 왕래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안내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금강산을 관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내교육은 통일부가 총괄하되, 관광객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교육실시는 관광사업자에 위임하여 관광선상에서 비디오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관광객을 안내하는 도우미들에 대해서는 관광안내 요령 등 금강산 관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내용을 반기별로 교육하였다.

나. 국내외 출장교육

국내외 출장교육은 국내 지역사회 주민 및 해외동포 16,021명에 대하여 현지에서 실시되었다.

국내 출장교육은 시간이나 거리 등 제반 여건상 정규 통일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방의 여론 선도층 인사나 각급 사회 및 학교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원의 교수가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강의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15,744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해외 출장교육은 2000년 11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유럽 및 북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277명을 대상으로 본국의 통일문제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통일문제의 국제적 지지기반을 확산하는 데 초점을 두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일교육 추진 실적>

과정 및 반		대 상	기간	계 획(명)	실적(명)	비고(%)
통일 교육 전문 과정	통일교육전문위원반	통일교육전문위원(연찬)	3일	250	201	80
		통일교육전문위원(신규위원)	5일	100	99	99
	평통자문위원반	민주평통자문위원(신규위원)	1일	350	328	94
		민주평통자문위원(홍보위원)	3일	150	219	146
	사회교육반	사회교육기관 강사	3일	180	116	64
		사회교육기관장	3일	45	24	53
		민방위교육강사	3일	90	89	99
	학교교육반	학교교사	3일	1,170	1,661	142
		교장·교감, 교육전문직	3일	270	251	130
		대학교수	3일	180	179	99
	공직자반	관리직공무원(2-4급)	3일	80	48	60
		읍·면·동장	3일	270	206	74
		정훈장교	3일	135	130	96
		이탈주민보호담당관	3일	180	136	76
	통일직무반	통일부공무원	5일	50	20	40
소 계		1-5일	3,500	3,707	106	
남북교류협력과정	방북예정자반	북한방문예정자	1일	4,560	3,550	79
	관광도우미반	금강산관광도우미(신규)	1일	40	119	289
		금강산관광도우미(연찬)	1일	400	230	58
	회담대표단 및 왕래행사 참가자반	정상회담, 이산가족방북단, 언론사사장단 등	1일	0	562	
	소 계		1일	5,000	4,461	90
통일요원과정	행정요원반	4-5급 공무원	2주	360	225	63
	교육요원반	중등교사, 교육전문직	2주	360	318	88
	통일요원교육이수자반	'98년이전통일요원교육이수자(행정)	3일	200	139	70
		'98년이전통일요원교육이수자(교육)	3일	100	80	80
	소 계		3일-2주	1,020	762	75
특별과정	정부관련기관간부반	정부관련기관간부	3일	45	38	84
	사회단체간부반	노동조합간부	3일	180	40	22
		종교단체간부	2일	45	28	62
		여성단체간부	2일	135	69	51
	통일단체간부반	통일관련단체간부	2일	200	135	68
	대학생반	북한학수강생, 학생회간부	3일	360	256	71
	방송국 PD·작가반	방송국 PD·작가	2일	45	0	
	자원교육반	자원(自願)교육자	1-2일	370	2,308	624
	학부모특별연찬반	서울시(초중고)학부모	1일	0	2,995	
	전국 시도 교육감	시도 교육감 및 교육국장	1일	0	30	
소 계		1-3일	1,380	5,899	429	
합 계		1일-2주	10,900	14,829	137	
출장 교육	국내 대외출장	각급교육청(교사 등), 지방자치단체	1일	20,560	15,744	77
	해외 순회교육	해외거주 동포	1일	540	277	51
	합 계			21,100	16,021	76
총 계		1일-2주	32,000	30,850	97	

3.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지원

가.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지원

정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위하여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통일교육시범학교 23개교(초등학교 8, 중학교 9, 고등학교 6)를 지원하였다. 이들 시범학교에 대하여는 북한 및 통일관련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는 한편 해당 학교의 교사와 학생에 대해서는 하계방학 중 초청교육을 통해 통일교육 관련 발표회, 판문점 견학 등을 실시하였다.

<2000년도 통일교육시범학교 현황>

2000. 12. 31. 현재

지정기관	학교명	주 소	기간
서울시교육청	신정초등학교	서울 강서구 화곡2동	2000.3.1-2002.2.28
	양서중학교	서울 양서구 신월3동	2000.3.1-2001.2.28
	서서울정보산업고등학교	서울 구로구 수궁동	2000.3.1-2001.2.28
	광남고등학교	서울 광진구 광장동	2000.3.1-2001.2.28
부산시교육청	재송여자중학교	부산 해운대구 재송2동	2000.3.1-2001.2.28
	신금초등학교	부산 북구 금곡동	1999.3.1-2000.2.28
대구시교육청	경서중학교	대구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2000.3.1-2002.2.28
인천시교육청	제물포고등학교	인천 중구 전동	2000.3.1-2002.2.28
광주시 교육청	하남초등학교	광주 광산구 하남동	2000.3.1-2002.2.28
	광주무등중학교	광주 동구 소태동	2000.3.1-2002.2.28
대전시교육청	유성고등학교	대전 유성구 구암동	2000.3.1-2001.2.28
울산시교육청	명덕여자중학교	울산 동구 일산동	2000.3.1-2001.2.28

지정기관	학교명	주 소	기간
경기도교육청	파주갈현초등학교	경기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2000.3.1- 2002.2.28
강원도교육청	원통초등학교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1리	1999.3.1- 2001.2.28
충남교육청	금산고등학교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2000.3.1- 2001.2.28
전북교육청	전주농업고등학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999.3.1- 2001.2.28
	부안영전초등학교	전북 부안군 보안면 영전리	2000.3.1- 2002.2.28
전남교육청	운남초등학교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2000.3.1- 2002.2.28
경북교육청	상주합창초등학교	경북 상주시 합창읍 구향리	2000.3.1- 2002.2.28
	청도매전중학교	경북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	2000.3.1- 2002.2.28
경남교육청	거제옥포중학교	경남 거제시 옥포2동	2000.3.1- 2001.2.28
	남해중학교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2000.3.1- 2001.2.28
제주교육청	애월중학교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애월리	2000.3.1- 2002.2.28

또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통일교육 장학자료인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를 각급 학교용(초·중·고)으로 발간하여 전국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자료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변화상과 북한주민의 삶에 대한 이해 및 통일을 준비하는 학생의 마음가짐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2000년 11월 17일에는 「전국교육감 통일교육 특별 연찬회」를 개최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으며, 12월 21일에는 「시·도 통일교육담당 장학관(사) 연찬회」를 통해 정부의 통일교육지침 설명 및 통일교육담당자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천적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나. 대학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1) 대학통일문제연구소 지원

정부는 대학내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연구분위기를 조성·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대학통일문제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2000년 12월말 현재 전국 83개 대학

에 관련 연구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각 대학 통일문제연구소는 통일문제 학술 세미나 개최, 북한학 강좌 교재 개발, 학생들의 통일문제 관련 발표와 토론회 등을 주관하고 있다.

통일문제 학술세미나는 통일문제연구소의 기본사업으로 정착되어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대학의 연구기반 조성과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함양 등 대학통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북한학과의 설치 확대를 위해 북한학 강좌 교재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학부에 북한학과가 설치된 대학은 고려대, 관동대, 동국대, 명지대, 선문대, 조선대 등 6개 대학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학통일문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81년 16개 대학에 1,92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초로 하여 매년 지원을 계속해 왔다. 1999년에는 50개 대학에 2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00년에는 정부의 국고보조금지원 축소방침에 따라 규모가 대폭 축소된 44개 대학에 1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학생발표·토론회는 지도 교수 책임하에 대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을 함으로써 대학사회내 건전한 통일의식의 함양과 참여도를 제고하여 통일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또한,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소장들의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남북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자료의 교환으로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가 주최하는 워크숍이 1995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2000년에는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관계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대 학부설 통일문제연구소 현황>

(2000. 12. 31. 현재)

대학	연구소명	소장	대학	연구소명	소장
강릉대	통일문제	김건석	동의대	법정	하철영
강원대	사회과학	홍성렬	명지대	사회과학	조병륜
건국대	민족통일	양병희	목포대	통일문제	서창호
경기대	민족문제	노태구	배재대	통일문제	김혁동
경남대	극동문제	서대숙	부산대	한국민족문화	채상식
경북대	평화문제	엄재호	부산외대	국제관계	김종현
경산대	평화전략	권기수	상명대	통일문제	조성대
경상대	통일문제	남궁근	상지대	사회과학	공재욱
경성대	사회과학	공보경	서강대	동아	정인재
경원대	사회과학	이화숙	서경대	통일문제	전신욱
경희대	국제평화	손재식	서울대	사회과학	권태환
고려대	평화	조정남	서울시립대	법률행정	박용찬
관동대	동북아평화	유삼열	서원대	사회과학	서규선
국민대	사회과학	문태운	선문대	평화사상	박홍순
군산대	현대이념	고용권	성균관대	사회과학	양종희
단국대	정책과학	김성윤	성신여대	사회과학	우명동
대구대	사회과학	김연기	세종대	통일문제	김영식
대구효성카톨릭대	통일문제	이학수	숙명여대	통일문제	이창신
대전대	동북아	지길홍	순천대	사회과학	김인선
동국대	사회과학연구원	강성윤	순천향대	사회과학	문제우
동신대	민족통일	최영표	숭실대	사회과학	서병훈
동아대	사회과학	박동국	신라대	국제지역	이병화

대학	연구소명	소장	대학	연구소명	소장
아주대	사회과학	김영래	조선대	동북아문제	이창헌
안동대	사회과학	손진상	중부대	평화통일	이부훈
안양대	복지행정	송준호	중앙대	민족통일	이상만
여수대	통일문제	류명걸	진주교대	초등교육	조기제
연세대	통일	민성길	창원대	사회과학	주정연
영남대	통일문제	김태일	청주대	국제협력	윤만근
영산대	지역통상	홍성원	충남대	통일문제	조명현
용인대	인문사회과학	전도웅	충북대	사회과학	강형기
우석대	한국정치	김영선	한국외대	사회과학	김만기
울산대	사회과학	이은우	한남대	사회과학	이봉철
원광대	통일문제	김용욱	한림대	한림과학	현승중
이화여대	한국여성	장길화	한서대	인문사회과학	송광성
인제대	인문사회과학	이행	한성대	동아시아	이우관
인천대	평화통일	정광하	한세대	통일문제	강명희
인천교육대	통일교육	이근철	한신대	평화	김창락
인하대	국제관계	백광일	한양대	통일정책	최성철
전남대	아태 지역	임채운	호남대	인문사회과학	황오연
전북대	사회과학	박세영	호서대	통일문제	채경석
전주대	사회과학	박창수	홍익대	동서문화	전 웅
제주대	동아세아	김부찬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장 워크숍 개최 현황>

연도	일자	발표주제	참여교수
1995	11.10-11.11 (경북 경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과 외교 · 세계화시대의 대학생 통일교육방향 · 세계화시대의 북한경제와 변화전망 · 북한문제강좌 교재개발 · 통일문제 교재개발 	68명
1996	11.15-11.16 (통일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 김정일체제하 북한의 경제개방과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전망 ·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북한연구의 방법 및 현황과 문제점 · 대학통일문제연구소와 협의회의 활성화방안 · 한반도 미래와 통일 	60명
1997	8.25-8.26 (전북 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통일정책의 회고와 전망 · 북한경제의 현실과 남북 경제협력 · 통일국가의 정부형태 · 미·중의 대남북한 정책 · 민족화합과 사회통합의 방향 · 통일한국의 영역과 위상 	70명
1998	12.16 (서울 프레스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의 전략환경과 한반도 문제 · 북한의 대내외 정책 · 주변국 관계와 한국의 통일정책 · 북한의 남북한 통일정책 · 서독의 대동독 화해·협력과 통일 · 미국의 동아·태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 	70명
1999	8.20~8.21 (전북 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시대의 지방정부 · 통일을 위한 사회통합과 자치단체의 역할 · 남북 교류협력의 새 패턴 · 동서독, 남북예멘의 지자체 협력 사례 · 중국과 대만간의 지방정부 및 민간교류의 현황 · 서해안 지역개발과 한·중·북간의 지자체 협력 · 한반도 연안어업과 어장 및 양식여건 · 남북 지역단체간의 결연과 어업 협력방안 	100명
2000	8.20~8.21 (금강산봉래호 선상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정부의 통일방안 비교 · 정상회담후 남북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 · 남북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방안 · 남북화해시대와 시민사회화 역할 	41명

2)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정부는 통일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학문적 관심과 연구분위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1982년부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논문 현상공모를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응모논문은 내외전문가의 3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입선작을 선정하고 있으며, 우수입상자에게는 통일부장관 표창 및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입선논문은 대학생 통일논문집으로 발간하여 전국 대학도서관 및 통일문제연구소 등에 배포·활용토록 하고 있다.

한편, 수상자에 대해 1987년부터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 실태 등을 살펴보기 위한 해외 연수를, 1998~1999년에는 판문점과 백령도 등 남북분단의 현장을, 그리고 2000년도에는 남북교류협력 현장인 금강산견학을 실시하였다.

<대 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현황>

연도	권장 주제	응모자	입상자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해 · 교류협력과 민족공동체 형성 · 북한의 변화와 개방화 여건 조성 · 분단국 통일이 우리의 통일에 주는 시사점 · 세계화와 통일대비교육 방안 · 주변4국과 통일문제 · 북한의 대미 · 일관계와 우리의 대응방안 	54개 대학 100명	9명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정세 변화가 남북관계와 통일에 미치는 영향 · 북한 경제난의 구조적 문제점과 향후전망 · 통일대비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추진방향 · 북한실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통일교육 방안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효율적 지원 방안 	56개 대학 109명	9명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정부의 대북정책 발전방향 · 남북화해 · 협력의 걸림돌과 그 제거방안 ·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체제 강구방안 ·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실천적 해결방안 · 사이버 세대의 의식구조 특성과 통일교육활성화 방안 · 북한실상의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비한 통일교육 방안 · 남북한 관계분석과 관계 개선방안 	64개 대학 121명 (대학원생 포함)	9명 (2인공동 입상1편)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 북한의 관계개선과 남북관계 전망 · 남북한 신세대 의식구조 동질화 방안 · 정보화시대의 남북간 협력방안 · 대학생의 통일관 정립을 위한 교육방향 · 남북한의 정치 · 군사부문 신뢰구축 방안 · 남북관계 개선과 정경분리 원칙 · 경수로 지원사업 추진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 북한 식량난 완화를 위한 남북농업 협력방안 	49개 대학 87명	9명 (2인공동입상 1편)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운송체제 구축방안 · 북한의 인터넷 구축과 남북한 사이버 공동체 건설 · 동북아 6개국의 한반도 통일지원 협의기구 · 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 정책에 관한 연구 · 사이버 통일교육의 추진방향 및 활성화 대책 · 탈북주민의 난민지위 획득에 관한 정부의 개입방향에 대하여 · 물리적 공간/사이버 공간의 매체로서 놀이성을 통한 북한 사회문화 통합 방안 · WBI를 활용한 초등학교 통일교육 추진방향 	42개 대학 62명	11명 (6명공동입상)

다. 사회통일교육의 지원

정부는 기존의 정부 주도적인 통일교육에서 민간도 함께 참여하는 통일교육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통일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동 협의회는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통일교육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소관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통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주요 민간통일교육단체 등의 의견수렴 및 설립준비과정을 거쳐 2000년 12월 22일 통일교육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법령에서 정해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사회통일교육의 지원 차원에서 전국의 11개 북한관의 운영을 지원해오고 있다.

부산, 광주, 인천, 청주, 창원, 제주, 고성, 양구, 철원, 임진각, 오두산 등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북한관의 통일교육장으로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통일·북한관련 전시자료 제공·유지·보수, 각종 이벤트행사 지원(학생통일글짓기대회, 각종 기획전시회 물품제공, 북한실상 설명회) 등을 통해 북한관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통일교육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산·광주·인천 소재 북한관에는 북한관련 특수자료를 소장하고 노동신문 등 북한간행 시사자료를 비치하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북 한 관 현 황 >

(2000. 12. 31. 현재)

지역	위 치	개관일	운영기관	전시내역	휴관일
부산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236 (자유회관내)	'89.1.30	자유총연맹 부산지회	판넬: 105점 실물: 723점	연중 무휴
인천	인천 남구 송의4동 8-7 (수봉공원 자유회관내)	'94.12.15	자유총연맹 인천지회	판넬: 48점 실물: 650점	월요일
광주	광주 북구 운암동 164-1 (중외공원내)	'89.3.10	통일교육 전문위원 광주협의회	판넬: 89점 실물: 742점	월요일
충북 청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72-13 (우암어린이회관내)	'93.2.23	청주시 우암 어린이회관	판넬: 60점 실물: 727점	월요일
제주	제주 제주시 일도2동 968-2 (탐라자유회관내)	'93.12.18	자유총연맹 제주지회	판넬: 37점 실물: 911점	연중 무휴
강원 고성	강원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188 (통일전망대내)	'88.6.15	통일관광 (주)	판넬: 42점 실물: 612점	연중 무휴
임진각	경기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482-3 (임진각경내)	'91.1.25	(주) 임진각	판넬: 49점 실물: 543점	연중 무휴
강원 철원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4리 20-1 (철의삼각전적관내)	'90.12.15	철원군청	판넬: 44점 실물: 606점	화요일
강원 양구	강원 양구군 해안면 현2리 (편지볼지구)	'96.8.14	양구군청	판넬: 55점 실물: 804점	화요일
오두산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88 (통일전망대내)	'92.9.8	동화진흥 (주)	판넬: 50점 실물: 1,197점	연중 무휴
경남 창원	경남 창원시 용지동 485번지 (자유회관내)	'98.4.29	자유총연맹 경남지회	판넬: 133점 실물: 687점	월요일

4. 통일교육자료 개발

정부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남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통일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다.

2000년도에 개발·보급된 주요자료를 보면, 첫째, 각급 사회교육기관과 강의자가 교육시간에 따라 강의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통일교육 표준강의전개안」을 발간(3,000부)하였다. 이 강의전개안은 국가·지방공무원교육원, 교원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민주평통협의회, 시민사회단체, 통일교육 강사 등에 배포하였다.

둘째,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알기 쉬운 소책자인 「새천년 통일문제 새로 보기」를 발간·배포(10,000부)하였다. 이 책은 북한 및 통일문제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을 정리하고 6.15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주요한 흐름과 쟁점사항들을 소개하고 있다.

셋째, 포켓판의 북한방문 안내책자인 「북한방문 길라잡이」를 발간(5,000부)하여 북한 방문자가 북한에 대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남북한이 함께 펼쳐갈 미래상을 담은 영상자료인 「새천년 함께 가는 남과 북」을 제작하였다. 동 영상교재는 학교 및 여러 사회교육기관에 1,500개를 배포하였으며, 영어판으로도 제작하였다.

다섯째, 사회통일교육의 주요 내용과 이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담은 「사회통일교육지침서」를 발간(2,000부)하여 각급 사회교육기관과 통일교육 강사요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 지침서는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을 강의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기법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황에 맞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각 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기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5. 사이버통일교육센터 구축·운영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대국민 통일교육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13

일 「사이버통일교육센터」(<http://www.uniedu.go.kr>)를 개설하고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는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통일교육 수요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교육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며,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특징과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통일·북한 관련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정규 통일교육과정으로 편입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N세대라 불리며 통일에 무관심하기 쉬운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 서비스를 위해 흥미와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각종 콘텐츠(웹 만화, 북한 애니메이션, 가상 북한여행 등)를 싣고 있다.

셋째, 특정어휘(Key Word)와 디렉토리(Directory)에 따라 외부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주는 통일/북한 정보검색 포털서비스(Por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북한방문에 관한 체계화된 정보자료 제공으로 방북시 도움을 주기 위한 북한방문 종합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일선 통일교육 활성화에 유용한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통일문제 연구소 등의 학술회의 일정 및 발표 논문 등 대학의 통일 연구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그밖에도 통일교육 커뮤니티(Community) 형성공간 제공, 통일교육 이수자의 인적사항 및 통계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통일교육 이수자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

제2절 대북정책 홍보 적극 전개

1. 수요자 지향형 홍보 실시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국민들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 내용과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정확히 알려 국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선 대북정책 및 통일 추진과 관련, 홍보 대상자이자 수요자인 국민들이 계층·세대에 따라 그 관심사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내용을 발굴하고, 홍보방법과 매체활용에 있어서도 다각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홍보가 아니라 국민들과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PC통신, 인터넷, E-mail을 적극 활용하였다. 특히 사이버 상에서 네티즌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특정 현안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전자공청회 등을 개최하였다.

2000년 한해 동안 「전자공청회」는 PC통신과 인터넷에서 4차례 개최하였으며, 총 접속건수는 267,678건에 달했다.

전자공청회를 통해 인터넷과 PC통신의 주된 이용자층인 신세대들에게 대북정책 및 남북정상회담의 추진 성과를 전달하고, 의견 교환 및 토론을 통해 정부와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PC통신 전자공청회 개최현황>

주 제	시 기	접속건수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남북간 평화·화해·협력	1998. 5	3,104
남북문제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나요?	1998. 7	6,466
남북교류협력과 금강산 관광사업	1998. 10	6,000
대북정책 및 경수로 재원부담	1998. 12	8,034
대북포용정책 어떤 성과가 있나요?	1999. 3	10,612
내가 만약 북경당국회담 대표라면	1999. 7	18,530
쉬리와 페리 이야기	1999. 10	19,272
남북실상 바로 알기	2000. 2	20,848
남과 북, 제로섬? 플러스 섬?	2000. 5	19,712
남북정상회담	2000. 9	111,011
남북관계 생각해 봅시다	2000. 12	116,107

한편, 대북정책 관련 각종 자료도 세대별·계층별 눈높이에 맞춰 제작되었다. 남북관계 전문가 대상으로는 상세한 정책해설자료집을, 일반국민 대상으로는 시각적·감성적 측면을 최대한 활용한 브로슈어 형식의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홍보 자료를 발간·배포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1999년에 만화 「점프」, 「빼리생각」을 발간한 데 이어, 2000년도 웹(web)만화 「함께하면 더 좋은 세상」을 개발하여 인터넷을 통해 보급하였다. 웹만화는 인터넷을 통해 시간·공간적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개발된 새로운 형식의 홍보·교육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교육홍보자료 발간 현황>

자 료 명	연도	발간부수	형태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1998	442,000	팸플릿, 리플릿
「햇볕정책의 의미와 추진방향」	”	22,500	팸플릿
「대북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	5,000	팸플릿
「남북이산가족교류협력 실무안내」	”	500	책 자
「남북이산가족교류협력 절차안내」	”	10,000	리플릿
「국민의 정부-통일교육기본방향」	”	6,500	책 자
「통일문답 100」	”	16,000	책 자
「'98 통일문제 이해」	”	11,000	책 자
「'98 북한 이해」	”	11,000	책 자
「북한 어린이의 교육과 생활」	”	100	책 자
「'99통일문답」	1999	20,000	책 자
「'98 통일백서」	”	6,000	책 자
「통일부 30년사」	”	1,200	책 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안내」	”	500	리플릿
「'99 통일문제 이해」	”	20,000	책 자
「'99 북한문제 이해」	”	20,000	책 자
「남북경제협력사업 실무안내」	”	2,000	책 자
국민의 정부 출범 1주년 - 「대북정책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5,000	팸플릿
대북정책 홍보만화 「점프」	”	20,000	책 자
대북정책 홍보만화 「뽀리생각」	”	35,000	리플릿
대북정책 기본해설서	”	8,600	책 자
포용정책 문답집 「포용정책은 안보와 협력입니다」	”	44,000	책 자
「2000 통일교육기본지침서」	”	20,000	책 자

자 료 명	연도	발간부수	형태
대북정책 2주년 실적자료 「대북정책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0	11,500	팸플릿
대북정책 2주년 실적자료 「For the Future」	”	25,000	브로슈어
「2000 통일백서」	”	6,500	책 자
「2000 통일문제 이해」	”	20,000	책 자
「2000 북한 이해」	”	20,000	책 자
남북정상회담 해설자료 「우리 함께」	”	29,500	책 자
남북정상회담 해설자료 「새날이 밝았다」	”	40,000	브로슈어
「남북공동선언 조항별 해설 및 주요 현안 문제 관련 질의·응답 자료」	”	30,000	책 자
「남북이산가족교류 어떻게 추진되나」	”	30,000	브로슈어
「함께하면 더 좋은 세상」	”	-	웹만화
「새천년 통일문제 새로보기」	”	10,000	책 자
「북한방문 길라잡이」	”	5,000	책 자
「사회통일교육지침서」	”	2,000	책 자
「사회통일교육 표준강의전개안」	”	3,000	책 자
「2001 통일교육기본계획」	”	1,500	책 자
「2001 통일교육기본지침서」	”	29,000	책 자
「새천년 함께 가는 남과 북」	”	1,500	영상자료
「대북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	100,000	책 자
「2000년 남북관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30,000	책 자

정부는 멀티미디어 시대의 진전과 더불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시청각자료 제작·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녹음해설 테이프를 제작하였고, 대북정책 추진성과와 남북관계 변화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여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한편, 1996년 12월 개통된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는 대북정책, 남북관계 현안 및 북한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국·영문으로 제공하고 있다. 2000년 말 현재까지 약 4년간의 이용객은 총 100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0년 한해 동안에만 77만여 건이 접속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

2000년에 달라진 남북관계와 통일 환경에 맞추어 통일부 홈페이지의 대북정책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과 국민 여론 수렴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다.

먼저 「남북정상회담」 코너가 신설되어 국민들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각종 정보·자료를 제공받음은 물론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의견 개진이 가능해졌다.

또한 「주요질의」(주요 궁금사항에 대한 답변), 「인터넷 전자공청회」(특정 주제에 대한 토론), 「감사관 핫라인」(감사 관련 의견 제시) 등의 코너가 신설되어, 기존의 「통일대화방」(통일문제 관련 의견 제시 및 문의), 「장관과의 대화」(통일부장관에 직접 의견 제시 및 건의) 코너와 함께 국민과 정부간 대화 통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한편, 「통일갤러리」 코너에는 2000년에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 및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주요 사진이 게재되어 있으며, 국민 누구나 자료로서 저장·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통일문제와 북한자료·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북한자료센터」(<http://unibook.unikorea.go.kr>)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자료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북한자료와 통일문제관련 자료에 대한 목록 및 내용 검색이 가능하며, 북한자료센터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북한영화 상영회 및 북한실상설명회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1998년 12월 개통된 이래 지난 1년간 총이용자수는 45만7천여명에 이른다.

그리고 남북회담에 관한 자료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인 「남북회담사료」(<http://dialogue.unikorea.go.kr>)도 운영하고 있다. 「남북회담사료」에는 1970년 이후 지금까지 약 30년간 남북간에 진행된 남북회담사, 남북합의서, 남북한 통일·대화 제의비교 등 각종 남북회담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국문과 영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한편, 2000년에는 전국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통일부 심볼로그(Symbol Logo)를 공모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통일부 심볼로그는 태극 모양이 변형된 형태로, 남북의 역동적 교류를 표현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정부의 통일 의지에 대해 더욱 친근하게 느끼는 상징적 이미지로 활용되고 있다.

<통일부 홈페이지 메뉴 구성>

새소식	남북관계현안	민원마당
o 보도자료 o 공지사항 o 일일북한방송 o 주간북한동향 o 남북관계일일동향 o 남북교류협력동향	o 대북포용정책 o 대북지원 o 북한이탈주민지원 o 남북교류협력 o 대북경수로지원 o 기타	o 장관과의 대화 o 통일대화방 o 행정정보공개 o 감사관 Hot line o 사이버 통일포럼 o 주요 질의(FAQ)
알기쉬운북한	자료실	남북정상회담
o 정치, 군사, 대외관계, 변화가능성 o 경제, 주민생활 o 사회, 교육, 문화, 예술 o 달라진 남북의 언어 o 참고자료	o 통일부 유관법규 o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o 남북관계주요문서 o 통일부 발간물 o 신진연구자 논문집 o 독일통일 자료목록 o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o 보도자료 o 국민의견수렴
통일갤러리	통일부 안내	북한자료센터
o 기록사진 o 북한의 산하 o 북한주민의 생활 o 한민족의 삶 o 한민족의 애창가요	o 조직 및 업무 o 전화번호 o 통일부 약도 o 통일부 허가법인현황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통일교육센터
		남북회담자료
		검색
		관련사이트

2. 대북정책 현안 설명 강화

2000년에는 대북정책 및 통일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신속하게 제작하여 배포하는 데 노력하였다. 이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대북정책 및 통일 관련 현안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었다.

먼저 남북관계 관련 중요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통일속보」와 E-mail 자료를 발간하였다.

<2000년 통일속보 및 E-mail 자료 발간 현황 >

자료명	형식	시기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해설자료	속보	1월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 선언 관련 해설자료	속보	3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속보	4월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 합의 해설	속보	5월
남북정상회담 결과 해설자료	속보	6월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해설자료	속보	7월
남북공동선언 조항별 해설 및 주요 현안문제 관련 질의·응답 자료	E-mail	7월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결과 해설자료	속보	7월
평화와 도약의 한반도 시대	E-mail	8월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결과 해설자료	속보	9월
김용순 특사 서울방문 결과 해설	E-mail	9월
최근 남북관계 이렇습니다!	E-mail	9월
제1차 남북경협 실무접촉 결과 해설	E-mail	9월
대북 식량차관 및 WFP를 통한 지원	E-mail	9월
제3차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해설자료	E-mail	9월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결과 해설	E-mail	10월
투자보장 등 4대합의서 관련 해설자료	속보	11월
대북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E-mail	11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결과 해설자료	속보	12월
2000년 남북관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E-mail	12월

또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식의 우려감도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이와 같은 국민들의 우려에 대한 설명도 강화하였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우려하거나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질의응답자료집 「남북공동선언 조항별 해설 및 주요 현안문제 관련 질의·응답 자료」, 「대북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을 발간·배포하였다.

한편, 현안 설명 자료를 보다 신속하게 배포하기 위한 일환으로 E-mail 배포시스템 구축에 주력하였다. 현안 설명 자료를 E-mail을 통해 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2000년 말 현재 약 1만8천여명의 교사, 통일문제 전문가 등에게 E-mail로 자료를 수시 배포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E-mail 배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등 PC통신에 「통일·북한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주간 북한동향,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보도자료, 북한영화 상영 안내, 통일정책관련 자료 및 최근 통일관련 뉴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북정책 및 통일 관련 현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신속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라디오와 TV 등 방송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였다.

2000년에는 정부 당국자가 각종 시사 프로그램 및 통일 관련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설명하는 기회를 자주 가졌으며, KBS사회교육방송을 통해 북한주민 및 중·러지역 동포들에게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노력도 계속해 왔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남북장관급회담 등 회담행사와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행사 현장에 프레스센터를 개설·운영하여 언론 보도 활동을 지원하였다.

3. 국제사회 및 해외동포 대상 홍보 활성화

가.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환경 조성에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가운데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정부의 입장과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데 힘써 왔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해설자료 등을 영·일·중·노어 등 주요 외국어로 발간하였으며,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외국의 주요기관 및 여론 지도층에 배포하였다.

또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주요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1998년 7월

격월간으로 시작한 영문 뉴스레터 「Korean Unification Bulletin」을 1999년부터는 월간으로 발간 회수를 늘려 외국정부기관 및 저명학자, 해외공관 및 동포사회 지도층에게 배포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연구기관인 평화문제연구소와 남북평화통일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통일한국」과 「Korea and World Affairs」를 해외동포와 외국연구기관·여론지도층을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 민간단체 해외홍보자료 발간 현황 >

2000. 12. 31 현재

기관명	연 도	간기	자 료 명	부 수
평화문제연구소	1989~현재	월간	통일한국	매호 7,000
남북평화통일연구소	1981~현재	계간	Korean and World Affairs	매호 1,800

< 국제사회 대상 홍보자료 발간 현황 >

2000. 12. 31 현재

구 분	연 도	형 태	자 료 명	부 수	비 고
정 기	1998~	월간	Korean Unification Bulletin	매호2,000	"
부 정 기	1993	팸플릿	Korea's Unification Policy	15,000	"
		리플릿	Question of Korea Unification	25,000	영·일
	1994	팸플릿	A New Track for Unity	2,000	영어
		리플릿	Coming Together as One	25,000	"
	1995	단행본	A New Track for Unity등 2종	1,500	"
	1997	팸플릿	An Analysis of The Food Situation in North Korea	4,000	"
			What We Shall Do for Our Unification	6,000	"
	1998	팸플릿	The North Korea Policy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8,000	"
			韓國新政府の 對北韓政策	9,000	일어
			韓國新政府 對北韓政策	4,000	중어
			Politica hacia Corea del Norte del Gobierno del Pueblo	3,500	스페인어
	1999	단행본	Kim Dae-jung's Policies on North Koea	2,000	영어
			Policy towards North Korea for Peac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3,000	"
		팸플릿	平和と 和解・協力のための 對北韓政策	2,000	일어
	2000	단행본	Together As One	5,000	영어
			一つに なって	2,000	일어
			携手并進 邁向統一	2,000	중어
			ВМecTe как ОДИ	1,000	노어
		팸플릿	The 1st South-North Ministerial Talks	3,000	영어

나. 해외동포에 대한 통일홍보

560여만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민족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해외동포 사회의 이해와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15개국 47개 동포 신문사·방송사에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시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대북정책의 의미와 정당성 등을 동포사회에 알리고 있다.

또한, 정부는 1991년부터 매년 「세계 한민족 통일문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미주지역 동포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미주지역 통일문제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2000년에는 제10차 세계 한민족 통일문제 토론회를 23개국 140여명의 해외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 10주년을 맞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하였으며, 제8차 미주지역 통일문제포럼을 미국 중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카고, 밀워키에서 개최하였다.

< 세계 한민족 통일문제 토론회 개최 현황 >

2000. 12. 31 현재

구 분	개최일	장 소	참가인원	대 주 제
제1차	1991.9.13	서 울	15개국 262명	21세기를 향한 한민족공동체의 나아갈 길
제2차	1992.8.18-19	러시아 사할린	11개국 154명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의 한반도
제3차	1993.9.20-23	서 울	17개국 336명	신한국 창조와 조국통일의 과제
제4차	1994.8.5-7	중국 연변	10개국 25명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 전망
제5차	1995.8.16-17	서 울	14개국 650명	통일·번영의 한민족시대 전망
제6차	1996.11.21-23	일본 도쿄	13개국 250명	한민족통일을 위한 새로운 이해
제7차	1997.9.5-6	서 울	16개국 300명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안정적 변화 유도
제8차	1998.8.17-19	미국 샌프란시스코	10개국 120명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해외 동포사회의 역할
제9차	1999.10.1	서 울	6개국 100명	포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해외동포의 역할과 과제
제10차	2000.6.17	독일 베를린	23개국 140명	독일통일 10년과 한반도 통일

< 미주지역 통일문제포럼 개최 현황 >

2000. 12. 31 현재

구 분	개최일	장 소	참가인원	대 주 제
제1차	1993.11.5-6	미국 L.A	150명	새로운 국제정세하의 문민 정부의 통일과제
제2차	1994.12.1-2	미국 뉴욕	150명	동북아시아 신질서와 향후 남북한 관계
제3차	1995.12.7-8	미국 L.A	200명	광복 50년, 통일과 한민족의 미래
제4차	1996.8.29	캐나다 토론토	120명	신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통일
제5차	1997.10.6-9	미국 시애틀, 캐나다 몬트리올	100명 85명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및 대책방향
제6차	1998.8.20-22	캐나다 밴쿠버	110명	남북한 평화정착과 화해협력
제7차	1999.10.28-11.3	미국 달라스, 휴스턴, 호놀룰루	560명	대북 포용정책과 남북관계 현황
제8차	2000.12.5-7	미국 시카고, 밀워키	210명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 계 현황과 전망

제3절 국민의견 수렴 및 민간통일활동 지원

1. 여론조사 실시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주요 계기별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2000년은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정부는 이와 같은 국민적 관심을 통일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 출범 2주년, 베를린 선언, 남북정상회담 등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때를 기준으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2000년도 여론조사 실시 결과>

2000. 12. 31 현재

구분	일자	대 상	주 요 내 용
1차	2.29	일반국민 1,5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정책 지지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2%가 지지 ○ 현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 최대성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 인적교류의 확대’를 선정(29.1%) ○ 대북정책 추진 후 전쟁위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1%가 ‘감소되었다’고 응답
2차	3.13	일반국민 1,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정책 지지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0%가 지지 ○ 베를린 선언 내용 평가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3.5%가 공감 ○ 특사교환시 우선적 협의사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이산가족 상봉실현’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35.4%)
3차	6.18	일반국민 1,5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정책 지지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7%가 지지 -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향후 최우선 정책추진 과제로 선정(52.4%) ○ 남북정상회담 평가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7%가 성과 인정 - ‘남북정상간 만남 자체’를 최대성적으로 선정(43.0%) ○ 김정일의 서울방문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8.7%가 적극 찬성하며 환영
4차	9.23	일반국민 1,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정책 지지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9.6%가 지지 ○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룬 가장 큰 성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등 이산가족문제의 본격적 해결’(70.2%) ○ 대북 식량차관 제공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3%가 긍정적 지지 ○ 국군포로 및 남북자 문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문제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입장에 대해 65.3%가 공감

구분	일자	대 상	주요 조사내용
5차	12.18	일반국민 1,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대북 정책 지지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6%가 긍정적으로 지지 o 2000년 남북관계 최대성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58.3%) o 대북지원 규모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여야 한다’가 55.4% o 남북관계 추진속도와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8.3%가 ‘빠르다’고 응답 o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8.9%가 찬성 o 2001년도 중점추진과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28.0%)

2. 자문기구 운영

가. 통일고문회의

통일고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초당적·범국민적 의견 종합, 평화통일 의식의 고취, 그리고 효율적인 통일정책 협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자문기구이다.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정부는 「통일고문회의규정」을 개정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통일고문회의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한편, 통일고문회의 임기를 2년 6개월로 조정하였다.(1998.11.28)

1999년 5월 19일 새로 구성된 통일고문회의(의장 : 강원룡)는 통일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을 듣고 이를 통일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활발히 노력하였다. 1999년에 이어 2000년에도 대구지역(9.1~2) 및 마산지역(9.28~29)에서 여론 수렴활동을 전개하였다.

2000년 11월 20일 조영식 신임 의장 등 29명의 통일고문을 위촉하여 통일고문회의를 새로이 구성하였다.

<통일고문 명단>

2000.12.31 현재

성명	직책
조영식(의장)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위원장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전 민화협 상임의장
강문규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권오기	21세기평화재단 이사장, 전 통일부총리
김근	연합뉴스 사장, 전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김수환	추기경
김종하	고합그룹 상임고문, 전 대한체육회장
김창국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박권상	한국방송협회 회장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13대 국회의원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종화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 경동교회 당회장
서병식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안무혁	한국발전연구원 이사장, 14대 국회의원
오재식	월드비전 회장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이기옥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이만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병형	성우회 자문위원, 전 2군사령관
이상훈	재향군인회 회장, 전 국방부장관
이성립	한국예총 회장
이어령	이화여대 석좌교수, 전 문화부장관
이우정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14대 국회의원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전 국무총리
장상	이화여대 총장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조완규	한국생물산업협회 회장, 전 교육부장관
최명헌	전 노동부장관, 11·12대 국회의원
최영철	통일번영연구원 회장, 전 국회부의장

나. 통일정책 평가회의

정부는 통일 및 대북문제와 관련된 주요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적실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통일정책평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평가위원회는 2000년 말 현재 15명으로 분야별 전문성, 직능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정치·경제·법률·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고르게 위촉하고 있으며, 매년 3월 일부 위원을 새로이 위촉하고 있다.

<2000년도 통일정책 평가위원 명단>

위촉기간: 2000. 3~2001. 2

성명	직책
구영록	서울대 명예교수
권영빈	중앙일보 논설주간
남인숙	대구효성카톨릭대 여성학과 교수
백종천	세종연구소 소장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안병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양건	한양대 법학과 교수
유세희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장청수	대한매일 논설위원
전인영	서울대 국민윤리학과 교수
정천구	영산대 총장
조형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하영선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황의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다. 정책자문위원회

주요 대북·통일정책의 입안·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2000년 말 현재 통일정책, 북한정보, 교류협력, 인도지원, 남북회담, 통일교육 등 6개 분과위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8월 위원을 새로이 위촉하고 있다.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명단>

(위촉기간: 2000.8~2001.7)

통일정책 분과위 (10명)	북한정보 분과위 (8명)	교류협력 분과위 (8명)	인도지원 분과위 (7명)	남북회담 분과위 (8명)	통일교육 분과위 (7명)
전득주 (위원장 : 숭실대 통일정책 대학원장)	홍승길 (위원장 : 관동대 교수)	이장춘 (위원장 : 한국관광학회 회장)	한태선 (위원장 : 한양대 교수)	장달중 (위원장 : 서울대 교수)	박찬세 (위원장 : 배재대 초빙 교수)
권민웅 (경북대 교수)	강성운 (동국대 교수)	김경량 (강원대 교수)	김영수 (서강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교수)	고정식 (배재대 교수)
남찬순 (동아 일 보 논설위원)	고일동 (한국개 발 원 연구위원)	김혜원 (코리아헤럴드 논설위원)	김종희 (일천만이산가족 재추위 사무국장)	김구섭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김형석 (한민족복지재단 사무총장)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김길선 (월간민족통일 편집장)	박양호 (국토개발연구원 국토계획실장)	이금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재홍 (동아 일 보 논설위원)	오재림 (숙명여대 교수)

통일정책 분과위 (10명)	북한정보 분과위 (8명)	교류협력 분과위 (8명)	인도지원 분과위 (7명)	남북회담 분과위 (8명)	통일교육 분과위 (7명)
장명봉 (국민대 교수)	서주석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 팀장)	정영화 (서경대 교수)	이종훈 (국회입법조사 관실 교육담 당관)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장)	이수훈 (경남대 교수)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류길재 (경남대 교수)	정진성 (서울대 교수)	정안숙 (좋은벗들 사무 국장)	윤덕희 (명지대 교수)	최해림 (서강대 교수)
좌승희 (한국경제연구 원장)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조동호 (KDI 북한경제 연구팀장)	최대석 (동국대 교수)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황대준 (성균관대 교수)
하용출 (서울대 교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조명철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연구위원)		장공자 (충북대 교수)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					
현인택 (고려대 교수)					

3. 다양한 여론수렴 활동

정부는 국민여론조사와 정책자문·평가기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 이를 정책에 반영해 오고 있다.

2000년에도 남북관계 관련 각종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토의된 내용들과 연구논문·언론기고 등을 통해 제기된 제안 내용을 수용하고자 하였으며,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장관급회담 등 계기 발생시마다 통일관련 단체, 관계 전문가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여론을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신문·방송 등 각종 언론의 남북관계 보도내용을 주간, 월간 등의 단위로 가감 없이 종합해 관련대책 수립시에 반영하고 있다.

4. 민간통일단체활동 지원

정부는 다양한 민간 통일운동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 단체의 정책제언을 수렴하는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통일관련 민간단체는 1980년대까지는 민족통일협의회 등 몇몇 단체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목적과 성격이 뚜렷한 단체들도 다수 생겨남으로써 민간분야 통일운동이 전문화·다양화되어 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들 민간단체의 활동은 광복 50주년·분단 50년이 되는 1995년을 계기로 한층 활발해졌고, 통일문제에 대한 실천적 참여를 확산시켜 대북식량지원 모금운동, 남북어린이교류, 통일마라톤대회, 통일작품현상공모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1998년 진보·보수·중도 등 다양한 견해를 가진 단체들이 함께 참여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결성됨으로써 범국민적 기반 위에서 민간통일운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민간통일운동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

통일활동을 위해 결성된 단체들 중 통일부 허가법인은 2000년 12월말 현재 총 82개이며, 통일부는 이들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연구·교육·홍보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통일부 허가법인 현황>

(2000. 12. 31 현재)

단 체 명	대표자	단 체 명	대표자
민족통일협의회	한양수	대한민국팔각회	최경석
민족문화통일회	최창순	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김형주
평화문제연구소	현경대	한국불교자유총연합회	이무용
민주통일촉진회	강명희	한국미래연구학회	신윤표
한민족세계선교원	조준상	한민족통일교육연구소	윤상덕
통일기념사업회	김동섭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우강호
21세기통일준비운동본부	허태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한완상
민족통일복음화운동본부	김규병	평화와통일을위한복지기금재단	이수성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고정명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우정
세계한민족평화통일협의회	김재천	민족화합운동연합	박영하
민족통일불교협의회	김태완	세계평화여성연합	정대화
민족통일에스라운동협의회	조동진	통일맛이	이재정
한민족통일촉진협회	양순임	평화통일복지협의회	김태유
한사랑민족통일진흥원	김학옥	평화통일교육성국민중흥회	유재진
21세기통일봉사단	박종근	민족통일연합중앙회	안광양
통일건국민족회	권천문	한국통일교육연구회	서인규
국민정신중흥회	이명규	범민족화합통일운동본부	박영록
대한기독교자유연맹	박태남	민족통일촉진회	서정일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유종관	북한연구소	김창순
평화연구원	방희	한국발전연구원	안무혁
한우리연구원	신창민	한민족통일연구중앙협의회	정성욱
통일시대연구소	이종률	다물민족연구소	박광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이장희	우리연합	최민자
한국청년정책연구소	이경훈	통일경제연구협회	김기환
백천통일시대연구원	홍성률	한국사회문화연구원	홍사방
한국사회통일연구원	유도진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변형윤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박관용	북방사회연구소	배명오
남북체육연구학회	이종영	21세기남북문화연구원	한태선
남북문화교류협회	이배영	민족통일선교협회	신현균

단 체 명	대표자	단 체 명	대표자
한겨레평화통일협회	장승학	남북코리아미술교류협의회	정주환
남북민간교류협의회	김승균	경실련통일협회	한완상
남북어린이어깨동무	권근술	남북강원도문화교류재단	강도원
세계평화청년연합	김봉태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	김도현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정성현	한민족한마음추진본부	김성택
남북소년통일교류회	정경석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송낙환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조영식	북한동포의 생명과인권을지키는시민연합	윤 현
남북나눔	김성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송현섭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김연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강성모
탈북자동지회	김덕홍	좋은 벗들	최석호
북한의민주주의와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조 혁	보통사람들의통일운동시대본부	김경재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이재정	남북사랑나누기협의회	최승강

제4절 북한정보자료 개방 확대

1. 북한자료센터 활성화

정부는 북한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북한정보자료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북한자료센터」에서는 북한방송의 주요 내용을 매일 인터넷에 게재하고 북한영화를 지속적으로 상영하며, 북한실상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왔다. 또한, 단계적으로 북한자료를 재분류·공개하였으며, 북한원전 데이터베이스(D/B)화를 추진하고 있다.

1990년 3월부터 「북한자료센터」(서울 광화문 소재)에서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북한영화 상영은 1993년부터는 부산, 광주 등 지방으로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 및 일반단체·기관이 별도의 상영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에 부응하여 수시 상영도 하고 있다. 2000년에는 인천 등 5개 지방도시 소재 북한관에 각 55편의 북한영화

를 공급하여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000년 한해동안 북한영화는 총 599회 상영되어 92,193명이 관람하였고 누적 총계는 1,120회 139,678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북한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1989년부터 관련단체 회원과 대학생, 통일 및 북한문제 전문가와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실상설명회를 개최하여 북한정세 및 북한주민생활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2000년 한해 동안 설명회는 34회 열렸으며 총 2,355명이 참가하였다. 1989년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총 237회가 개최되었고 16,412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정부는 북한자료 공개확대 방침에 따라 1999년부터 단계적으로 북한자료 중 비이념성 자료를 선별하여 이를 일반자료로 재분류, 공개하고 있다.

그 1단계로 1999년 3월에 북한 정기간행물 151종 2,694건을 재분류하여 이 중 61종 576건을 일반자료로 일반에 공개하고, 2단계로 1999년 12월에 북한간행 단행본 4,249권을 공개하였으며, 3단계로는 각종 그림 등 영상자료의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1998년부터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http://unibook.unikorea.go.kr>)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2000년 한해만도 총 404,436건의 접속건수에 질의·답변은 1,932건에 달하고 있다. 북한정보자료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0년 12월에는 홈페이지에 ‘북한영화 소개’와 ‘자료실’을 새로 설치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홈페이지의 기능 및 내용을 대폭 강화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주요 원문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함으로써 이용자가 원하는 곳에서 해당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북한 원문자료 관리 프로그램을 2000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다.

2. 북한방송 단계적 개방

정부는 북한방송이 북한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북한 바로 알기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이의 단계적 개방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1999년 7월 2일부터 태국의 ‘타이콧’ 위성을 이용하여 「조선중앙TV」 위성방송을 시험방송하고, 같은 해 10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위성방송을 시작하였다.

정부는 1999년 10월 22일 전향적인 입장에서 북한TV 위성방송에 대한 일반시청을 허용하였다. 각 라디오·TV 방송사가 북한위성방송을 직접 수신하여 활용하도록 허용하였으며, 일반국민들도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북한자료센터, 통일교육원)에서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의 북한TV 위성방송 시청 허용조치는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방송내용에도 변화가 있었다. 북한은 라디오와 TV의 대남 비방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종전의 대남 비방 대신 사실위주의 보도를 하고 있으며, 우리의 라디오와 TV가 북한의 보도매체를 인용하여 북한관련 소식을 곧바로 소개하는 것과 같이 북한의 보도매체도 우리의 언론을 인용, 우리 사회의 일부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남북간에 방송교류가 진행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의 북한관련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이 질적·양적으로 풍부해진 것도 이러한 남북관계 발전에 기인한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북한정보자료에 대한 접근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의 방송개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꾸준히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